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 가정통신문

제 2016 - 78호

발송일 2016. 4. 26.

발송처 군산푸른솔초

문의전화 460-1707

제 목

## 2016학년도 2·3·5·6학년 학생소변검사 안내

2·3·5·6학년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 소변검사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평생을 고생하게 하는 신장병은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조기발견·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단소변검사는 신장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만성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검사법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자녀가 검사일(4.28.목)에 결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2·3·5·6학년 학생소변검사 안내 ㉠

1. 검사일시 : 2016. 4. 28. 목요일(오전 9시 ~ ), 학교에서 검사 실시
2. 검사대상 : 2·3·5·6학년 학생 전원(\*검사일에 결석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3. 검사비용 : 무료(학교에서 지급)
4. 검사항목 : 단백, 당, 잠혈, PH(산도측정)
5. 주의사항
  - 1) 검사 전일 지나치게 많은 야채나 과일, 비타민 C를 섭취하지 않습니다.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2) 검사 2~3일 전부터 지나친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 3) 4.28(목) 아침, 가급적 첫 소변을 학교에 와서 배뇨하여 검사받도록 합니다(검사 정확도가 높음).
  - 4) 처음 나오는 소변은 흘려보내고 중간뇨를 검사스틱에 묻혀 제출합니다(당일 검사요원 검사 전 설명).
  - 5) 결과처리 - 학교보건협회의 검사결과 회신 후 2차검사를 받아야 할 학생에게만 통신합니다.  
(★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면 별도통신 하지 않습니다.)
6. 소변검사의 중요성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힘듭니다.

만성신장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집단 소변검사가 필수입니다.

신장은 노폐물 제거, 적혈구 생산의 조절과 골형성, 혈압은 물론 전해질 및 수분의 조절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자각증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만성신장염은 병이 상당히 진행되어도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신쇠약, 빈혈, 다뇨증 등의 자각증상이 나타나서 전문의를 찾을 때는 신장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약물 요법이나 식이 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투석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성신부전은 투석이나 이식 같은 치료 외에 약물요법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약물요법, 식이요법 및 기타 보조적인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2016. 4.

군 산 푸 른 솔 초 등 학 교 장